

꽃잎엽서 만들고... 말타고... 유치원은 '자연과 소통하는 장'

50th Since 1960 숲이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

<2> 숲을 교육현장으로 만든 스위스·독일

덴마크에서 시작된 숲유치원이 독일 등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독일에서는 숲유치원이 1,000개에 육박할 정도로 활성화되고 있다. 스위스에서는 유치원을 넘어 초등학교 저학년들을 대상으로 한 숲학교까지 발전하고 있다. 숲이 많은 독일은 숲유치원 설립에서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지방정부는 물론 중앙정부에서도 지원에 나서고 있다. 또 부모들은 숲을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 '숲 체험의 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오감을 일깨우는 바덴 숲학교=스위스 취리히 인근 소도시 바덴 외곽의 로텔슬리슈. 오전8시30분 숲 속 교실은 5~9세 유치원생 20명이 모여든다.

삼삼오오 모여 재잘거리며 뛰어놀던 아이들은 오전9시가 되자 선생님의 주위를 빙 둘러싸고 스위스어·독일어·영어·프랑스어 등 동요를 불렀다. 이어 선생님은 초콜릿 과자 만들기, 생일카드 만들기, 글 읽기 등 '놀거리'를 아이들에게 제안했다. 선생님의 말이 끝나자마자 아이들은 7~8명씩 무리 지어 흩어졌다. 여덟살인 엘레나 치니카는 생일카드 만들기를 선택했다. 며칠 뒤 생일을 맞은 남자친구에게 선물하기 위해서다. 이후 아이들은 간식시간과 자유시간 등을 가졌고 오후1시에 귀가했다.

바덴시의 숲유치원 나투어슈펠발트(Naturspielwald)에 다니는 아이들의 하루 일과다. 나투어슈펠발트에는 우리나라 유치원에서는 필수품인 책상이나 걸상이 없다. 숲 속의 나무와 풀·동물들, 그리고 선생님들이 준비한 간단한 보조 교재가 수업도구의 전부다. 교사 시빌 에크로프(39)씨는 "숲은 아이들의 오감을 자극하는 가장 좋은 소재"라며 "도심 한복판에 있는 일반 유치원 아이들은 머리만으로 글자와 숫자를 공부하지만 이곳 아이들은 자연을 몸으로 느끼고 그 느낌을 자연스럽게 머리로 받아들이는 과정을 거친다"고 말했다.

두 자녀를 이 유치원에 보낸 아내네 웅커카이트(여·40)씨는 "일반 유치원에서는 짝 짝여진 교육과정 때문에 아이가 힘들어했다"며 "숲유치원으로 옮긴 후에는 아이가 웃는 날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동물·나무와 함께하는 자연유치원=독일 에버슈타트시 과일초원센터 내 자연유치원 어린이들은 하루 일과를 동물 먹이 주기로 시작한다. 양과 염소·말에게 우유와 건초를 직접 건네주는 것이 첫번째 일과다.

이어 교사 세명의 지도 아래 목장 옮기기 등에 참여한다. 양과 말이 일정 구역 내에 있는 풀을 다 뜯어먹으면 어린이들은 경계목을 옮겨 새로운 목장을 만들고 말과 양을 이동시킨다.

"자연이 수업교재"... 책·걸상도 없어 머리대신 몸으로 느끼는 학습 강조 독일, 숲유치원만 1,000여개 육박 스위스는 초등생들까지 대상 넓혀

오전10시 아침식사 후 어린이들은 말그룹과 숲그룹으로 나뉜다. 학교에 갈 연령의 어린이들이 말그룹에 속하고 3~4세 어린이들이 숲그룹에 편성된다. 각각 숲길을 통해 숲 속 교육장으로 향한다. 말그룹 어린이들은 말타기를 배우고 숲그룹 어린이들은 숲길을 걸으며 나무와 꽃·풀 등에 대해 공부하고 자연과 관련된 노래를 한다.

숲 속 교육장에는 어린이들이 만들어놓은 숲 속 월드컵 경기장이 있고 어린이들과 교사가 함께 만든 나무집도 자리잡고 있다.

네살 때부터 자연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필립(6)은 "친구들과 산속에서 축구를 하며 나무를 타고 말을 타는 것이 즐겁다"면서 "친구들과 맘껏 놀 수 있어 유치원 생활이 정말 좋다"고 말했다.

◇다름슈타트 자연체험의 날=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서쪽으로 100km 정도 떨어진 다름슈타트시의 주민들은 6월 마지막 일요일인 '자연체험의 날'이 되면 어린이들과 함께 다름슈타트 북서쪽 베송어 포르스트(Bessunger forst)에 아침 일찍부터 모여든다. 다름슈타트 자연학교를 비롯해 다름슈타트 산림국, 베송어유치원, 어린이환경재단 등 20여개 기관·단체가 참여해 열리는 자연체험의 날은 어린이들에게 자연을 직접 체험하도록 하는 한편 숲유치원 설립 등에 동참할 것을 알리고 자신들이 속한 단체의 활동을 직접 보여주는 소통의 장이 된다.

특히 유아에서부터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는 자연 속에



스위스 바덴시 소재 사립 숲학교인 나투어슈펠발트의 학생들이 산속에 마련된 숲교실에서 나무에 낙엽을 붙이며 작품을 만들고 있다.



독일 에버슈타트시 과일초원센터 내 자연유치원 어린이들이 아침 활동의 일환으로 양들에게 먹이를 주고 있다.

서 즐겁게 놀면서 경험하는 자유의 날이 된다. 나무에 올라 바늘을 건너는가 하면 통나무로 별레집을 만들고 꽃잎으로 엽서를 만드는 등의 체험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한다. 또 유기농 가루 만들기, 나무 깎기, 큰 나무 오르기, 동화 듣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긴다.

◇숲교육의 메카 '숲의 집'=1989년 설립된 슈투트가르트 '숲의 집'은 바덴뷔르템베르크 산림국과 독일 숲보존협회가 공동으로 시민들을 위한 산림 프로그램

을 제공하는 동시에 교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숲교육기관이다. 한국의 교사들까지 방문해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할 정도로 유명하다. 숲의 집은 20개의 하부조직을 두고 있고 이들 조직은 각기 다른 환경 및 자연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숲의 집의 연간 방문객은 3만5,000명에 달한다.

숲의 집은 또 숲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 양성과정으로 숲교육학 연수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연간 100개

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중 50개는 위탁관리하고 있다. 숲의 집 디렉터 블라이(60)씨는 "숲의 집을 방문하거나 연수과정에 참여하고자 할 때 무엇을 할 것인가와 무엇을 찾을 것인가를 생각하고 와야 한다"며 "국민들 모두가 숲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위스 바덴, 독일 다름슈타트·에버슈타트 슈투트가르트=박희윤기자 hypark@sed.co.kr 김능현기자 nhkimchn@sed.co.kr

건강 100세를 실현하는
ILDONG 일동제약

상처가 다르면 치유법도 달라야겠죠?

진물 많고 깊은 상처

메디폼

보습환경이 상처의 진통을 적절히 조절하여 박진과 흉터걱정 없이 빠르게 치유해 줍니다

노출이 꺼려지는 작은상처

메디폼H

얼굴이나 손 등 노출이 불가피한 상처에 티 안나게 붙일 수 있는 얇고 투명한 방수밴드입니다

방수가 필요한 가벼운 상처

메디폼 리퀴드

가볍게 베이거나 골극부위 상처에 바로 보습 필름막을 형성해 상처를 치유합니다

제품문의: 080-022-1010 | medifoam.ildong.com | 창상피복재

“열살전엔 공부보다 놀이가 성장에 도움”



베레나 슈피이저 스위스 나투어슈펠발트 교장

“몸이 움직이면 생각도 움직입니다. 열살이 되기 전까지는 공부보다는 놀이가 아이들이 올바르게 성장하는 데 더 큰 도움을 줍니다.”

스위스 내 유일한 숲학교인 나투어슈펠발트(Naturspielwald·자연놀이숲)를 설립한 베레나 슈피이저 교장(사진)은 “정규교육 과정을 개설해달라는 학부모들의 요청이 있어 2년 전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1~2학년 과정을 통합한 숲학교를 설립했다”고 말했다. 20년의 일반학교 교사 경력을 보유한 슈피이저 교장은 “숲학교는 도심의 일반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와 달리 학습이라는 개념이 없이 숲 속의 나무와 나뭇잎·동물 등을 만지고 놀면서 자연스럽게 호기심을 유발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형화된 교육과정에서 탈피해 자연을 몸으로 느끼도록 하는 것이 숲학교의 핵심이자 장점”이라며 “학습능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은 기우에 불과하며 아이들은 자연을 몸으로 느끼면서 쉽고 세는 법을 자연이 깨닫게 된다”고 강조했다. /스위스 바덴=김능현기자 nhkimchn@sed.co.kr

“숲속에서 자란 아이들이 자립심 강해요”



미클리츠 독일 숲유치원 전문가

“숲유치원에서 자란 어린이들은 자립심이 강합니다. 이는 아이들이 살아가는 경쟁력이 될 수 있습니다.”

숲유치원의 설립에서부터 교사와 부모의 역할 등에 이르기까지를 담은 저서 '숲유치원'을 4쇄까지 낸 독일 숲유치원 전문가 미클리츠(57·사진)씨는 “숲유치원의 가장 큰 의미는 어린이들이 자연과 함께하면서 자연과 환경에 대해 인식을 갖게 되고 스스로 해야 한다는 자세를 길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클리츠씨는 “책으로만 공부하는 것은 패스트푸드와 같이 자국이 적다”며 “숲에서의 자극과 동기부여 후 아이들이 공부하게 되면 보다 쉽게 공부할 수 있게 된다”고 숲유치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클리츠씨는 또 “교사들이 먼저 자연에 대해 마음을 여는 것이 중요하며 실내에서와 달리 실외에서는 교사와 어린이들과 함께 배워야 한다”며 “아이들에게 뭔가를 가르치려 하지 말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독일 슈투트가르트=박희윤기자 hypark@sed.co.kr

■ 본 기획은 복권기금(산림청 녹색자금)의 지원으로 제작됐습니다.